생각하는 동화

큰 바위 얼굴(상)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큰 바위 얼굴은 거기서 몇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햇빛에 비쳐 선명하게 보였다. 큰 바위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골짜기로, 대체로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가파른 산허리에 통나무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급류를 이용해 방직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 아무튼 이 골짜기에는 사람들도 많고 사는 모양도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모두 큰 바위 얼굴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 위대한 자연 현상에 대해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큰 바위 얼굴이란 사실 깎아지른 듯 가파른 언덕 위에 얹어진 몇 개의 바위덩이였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그 바위들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 가 보면 거대한 얼굴의 형체는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여기저기 포개진 것으로만 보인다. 점점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점점 사람의 얼굴과 비슷해진다. 그리고 희미해질 만큼 멀어지면 큰 바위 얼굴은 안개와 구름에 싸여 정말 살아있는 얼굴처럼 보였다.

이곳 아이들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라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 얼굴은 생긴 모습이 숭고하고 웅장한데다 표정이 다정해서 온 인류를 감싸 안고도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되는 셈이었다. 이 골짜기의 토지가 기름진 것도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온화한 큰 바위 얼굴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야기를 시작한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어머니와 어린 소년은 오두막집 문 앞에 앉아 큰 바위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다. 그때 큰 바위 얼굴이 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 같았다.

"엄마, 저 큰 바위 얼굴이 말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렇게 친절한 얼굴을 보면 목소리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난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글|너새니얼 호손
그림|이희영

"옛날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고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단다."

"어떤 예언 말이에요? 엄마, 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니스트는 열심히 물었다. 어머니는 어니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러했다. 장차 이 골짜기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고상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는 큰 바위 얼굴과 닮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믿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려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엄마, 엄마! 내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망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어니스트는 오두막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언제나 엄마 이야기를 잘 듣고 엄마의 일을 도와드렸다.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하는 어니스트는 점점 온순하고 겸손한 소년이 되어 갔다. 밭에서 일을 하느라 얼굴은 검게 그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총명이 어려 있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다면 바로 큰 바위 얼굴 뿐. 어니스트는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았다.

그 무렵, 골짜기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전해오던 이야기대로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여러 해 전에 골짜기를 떠난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개더골드(Gather Gold-황금을 긁어모은다는 뜻)'라고 했다. 본명인지 아니면 그의 성공 때문에 생겨난 별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 사람은 빈틈없고 재빠른데다 사람들이 흔히 '재수'라고 부르는 행운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은 상인이 되었다. 그의 재산은 계산하는 데만도 오랜 시일이 걸릴 정도라고 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남은 삶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고향 아버지 땅에 궁궐 같은 집을 지었다. 그래서인지 골짜기에는 개더골드야말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예언 속의 인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얼굴 생김이 큰 바위 얼굴 그대로라는 소문이었다. 어니스트는 그토록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그는 늘 그랬듯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마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개더골드가 오는 것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야! 드디어 온다!"

"위대한 개더골드 씨가 오셨다!"

길모퉁이를 돌아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속도를 내어 달려왔다. 그리고 마차 창밖으로 조그마한 늙은이가 얼굴을 조금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누른빛이었다. 마치 마이더스(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 같은 색깔이었다. 이마는 좁고 눈은 작고 매서웠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쭈글쭈글했다. 그렇잖아도 얇은 입술은 꼭 다물고 있어서 더욱 얇아 보였다.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

"옛날 예언은 사실이었다. 마침내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오셨다!"

사람들 소리에 어니스트는 어리둥절했다. 그를 보고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들이 마차를 향해 손을 내밀어 구걸했다. 그러자 누런 손이 마차 창문 밖으로 쑥 나오더니 동전 몇 닢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사람을 개더골드라고 부르는 것도 그럴싸하지만

그때만큼은 '스캐터코퍼(Scatter Copper-동전을 뿌리는 사람)'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굳은 믿음으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소리쳤다. 어니스트는 낙심해서 고개를 돌렸다.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고 영악하고 탐욕만이 가득 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산허리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밝고 빛나는 얼굴이 주위의 안개에 가려져 막 지려는 햇빛을 받고 있었다. 큰 바위 얼굴이 온후한 입술을 열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월이 흘러갔다. 어니스트도 이제 젊은이가 되었다. 그가 골짜기 근처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일은 거의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다. 남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아직도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그에게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몰랐다. 큰 바위 얼굴은 어니스트에게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었다. 또한 어니스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경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왜 그것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했다. 그러는 동안 개더골드는 죽어 땅에 묻혔다. 이상한 것은, 그의 육체, 그의 영혼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많던 재산이 생전에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죽을 때쯤 그에게는 쭈글쭈글하고 누런 살갗으로 덮인 육체만이 남았던 것이다. 그의 황금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가 산 위에 있는 장엄한 얼굴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인물로 한 장군이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래 전에 군대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을 거쳐 유명해졌다. 그의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만 군대나 전쟁터에서는 그를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Old Blood and Thunder-피와 천둥의 노인)'라고 불렀다. 이 역전의 용사도 이제 온갖 고생과 상처 때문

에 몸이 허약해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북 소리나 나팔 소리 등으로 요란한 군대 생활에 싫증이 난 것이다. 그래서 그 역시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고 싶다고 발표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골짜기 사람들은 다시 흥분에 싸여 지난 몇 년 동안 거들떠보지 않던 큰 바위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드디어 큰 잔치가 벌어졌다. 어니스트는 그 유명한 손님을 보고 싶어 골짜기 사람들과 함께 숲 가운데 파티가 열린 곳으로 갔다. 큰 손님 주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호위병으로 따라온 병사들은 총검으로 사람들을 무참하게 밀어댔다. 그 바람에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나 장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큰 바위 얼굴 쪽을 바라보았다. 큰 바위 얼굴은 전과 마찬가지로 다정하게 미소를 띠는 것 같았다. 이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도장을 찍어놓은 것 같지 않나? 똑같은 얼굴이야!"

"똑같고말고! 마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가 커다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아무렴, 당연하지! 장군이야말로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인물이란 말일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그 소리는 전파처럼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나중에는 수천 명이 고함을 쳐서 수 마일이나 울려 퍼졌다. 마치 큰 바위 얼굴이 천둥 같은 호흡으로 소리 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장군이다! 장군이 나오셨다!"

"쉿, 조용히 하라고! 장군이 연설을 하신단 말이야!"

식사가 끝나고 박수갈채 속에 장군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니스트는 그를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푸른 월계수 가지가 얽혀 아치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깃발이 그늘을 만들며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숲이 트인 곳으로 멀리 큰 바위 얼굴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장군과 큰 바위 얼굴 사이에는 사람들의 증언처럼 정말 닮은 구석이 있을까? 어니스트는 수많은 전투와 갖은 풍상에 찌든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힘이 넘쳐흐르고 강철 같은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선량한 지혜와 깊고도 넓고 따뜻한 자애심은 찾을 수 없었다. 큰 바위 얼굴은 준엄한 표정이었지만 그 바탕에 분명히 더 온화한 빛이 있어서 준엄함을 녹여내고 있었다.

"예언이 말하는 그 인물이 아니다."

어니스트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혼자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생각해 봐요

-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 개더골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 어니스트는 장군을 보고 왜 실망했나요?